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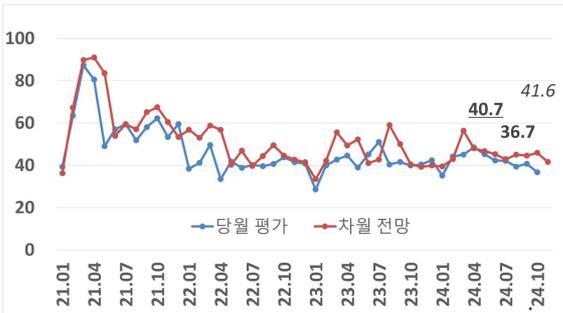
I. 2024년 10월 건설경기평가 및 11월 전망

■ 10월의 경기평가는 전월 대비 하락, 차월에 일부 회복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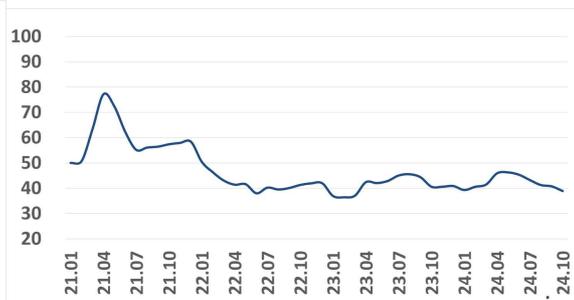
- 10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36.7로 전월(40.7)보다 낮았지만(-4.0p), 11월(41.6)에는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4.9p).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발주물량 감소,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역충돌, 심화된 자금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전관리, 퇴직공제카드 운영미숙 등이 지적됨.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0.8(52.9→40.8)로 전월 대비 크게 악화(-12.1p), 지방은 35.0(35.5→35.0)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0.5p).

〈표-1〉 2024년 10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11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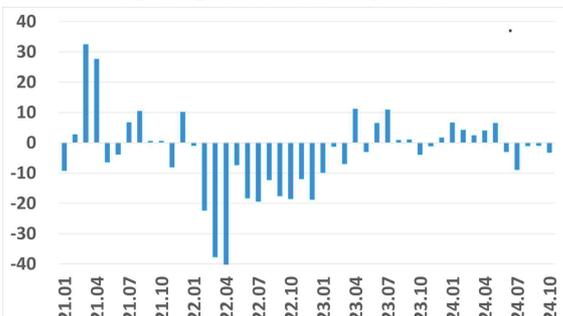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4년 10월 평가	36.7	39.9	40.8	35.0	40.0	42.4
2024년 11월 전망	41.6	39.3	44.9	40.2	40.0	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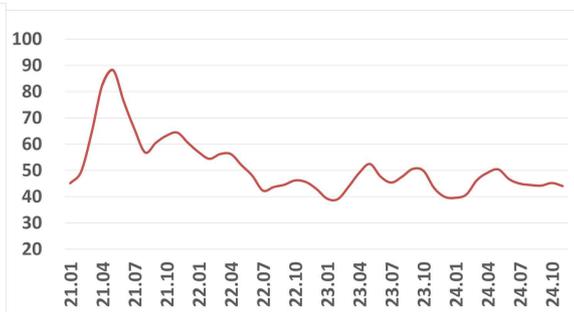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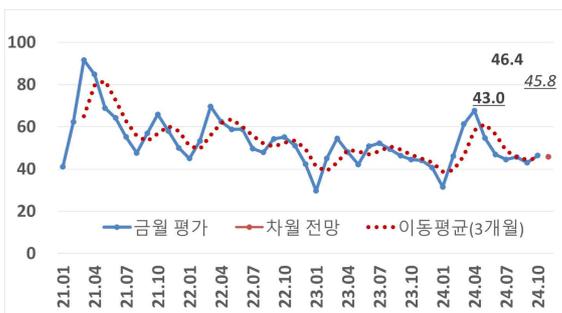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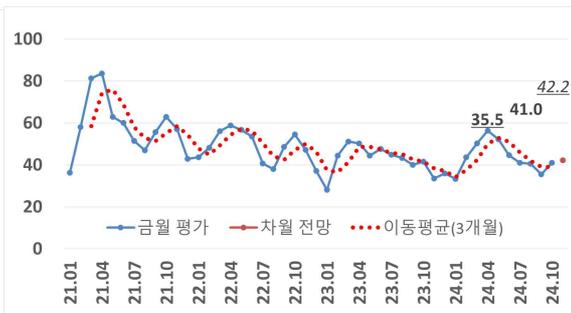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46.4(43.0→46.4)로 전월보다 소폭 개선되었으며(+3.4p), 하도급 수주도 41.0(35.5→41.0)으로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5.5p). 응답업체들은 건설공사의 발주물량이 줄어들고 입찰경쟁이 여전한 와중에, 일부에서는 대업종화로 인해 전문성이 낮은 업체들까지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54.9→59.2)이 전월보다 상승했으며(+4.3p), 지방(38.0→41.0)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음(+3.0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51.0→53.1)에서 개선되었으나 변동폭은 크지 않았으며(+2.1p), 지방(28.9→35.9)도 일부 상승을 보였음(+7.0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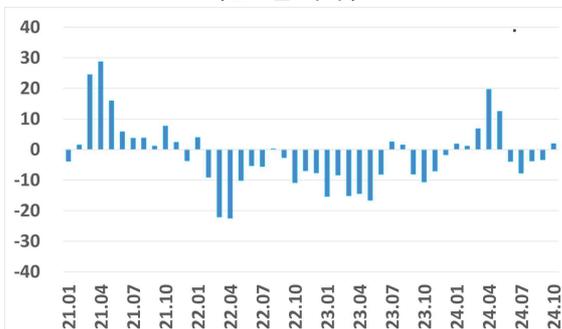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4년 10월 평가	46.4	44.5	59.2	41.0	63.3	52.5
	2024년 11월 전망	45.8	42.2	49.0	44.4	46.7	57.6
하도급 수주	2024년 10월 평가	41.0	41.6	53.1	35.9	56.7	47.5
	2024년 11월 전망	42.2	38.2	51.0	38.5	46.7	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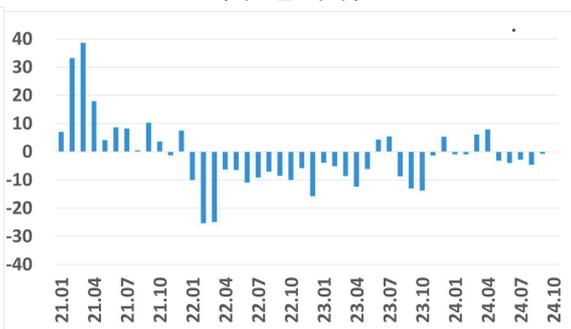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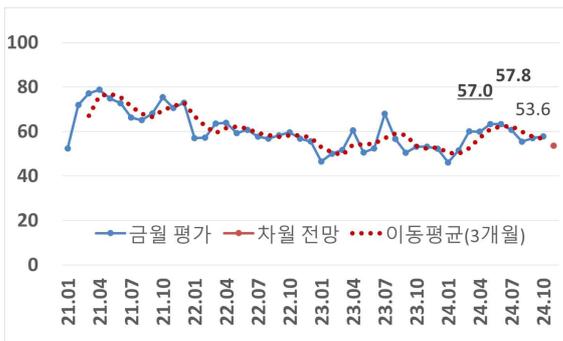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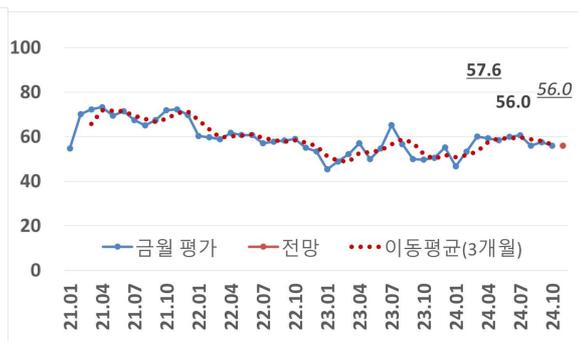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7.8(57.0→57.8)로 전월과 유사했으며(+0.8p), 차월(53.6)은 소폭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4.2p). 이번 조사에서는 지방 미분양에 따른 공사대금 수금의 어려움을 토로한 업체들이 다수 나타남.
 - 수도권(54.9→63.3)은 전월 대비 상승(+8.4p), 지방(57.9→55.6)은 하락함(-2.3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6.0(57.6→56.0)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1.6p), 차월(56.0)에도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0.0p). 금월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자금난이 극심하다는 의견을 나타냄.
 - 수도권(56.9→63.3)은 전월 대비 상승(+6.4p), 지방(57.9→53.0)은 하락함(-4.9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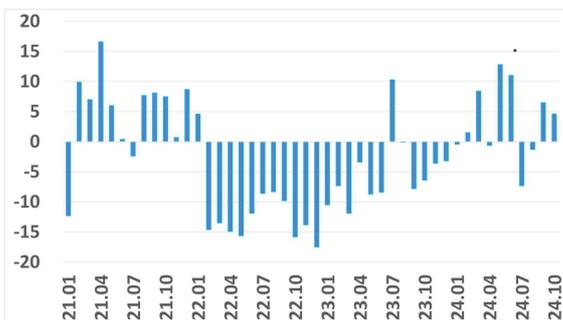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4년 10월 평가	57.8	53.2	63.3	55.6	70.0	66.1
	2024년 11월 전망	53.6	50.9	57.1	52.1	53.3	59.3
자금조달	2024년 10월 평가	56.0	49.7	63.3	53.0	66.7	61.0
	2024년 11월 전망	56.0	52.0	61.2	53.8	56.7	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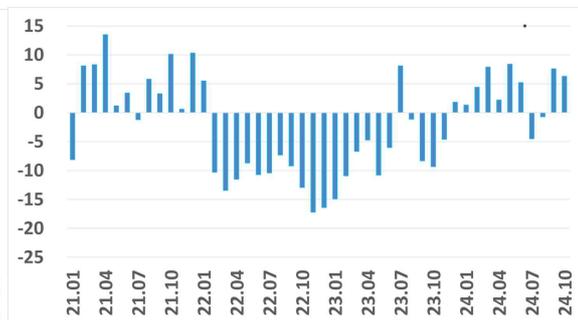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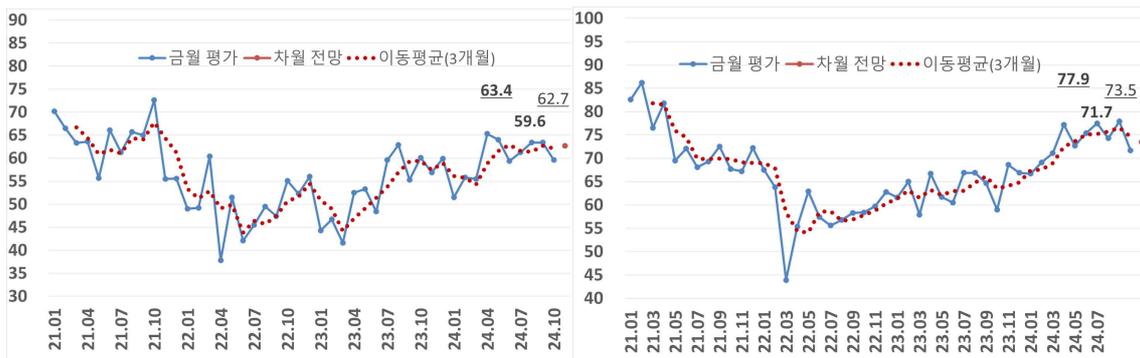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은 소폭 하락, 기능인력수급은 악화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59.6(63.4→59.6)으로 전월보다 일부 하락했으며(-3.8p), 이는 지수하락이 두드러졌던 전년 동월(60.1)과 유사한 수준임(-0.5p).
 - 수도권(66.7→61.2)은 전월보다 악화(-5.5p), 지방(62.0→59.0)도 하락함(-3.0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²⁾는 71.7(77.9→71.7)로 하락했지만(-6.2p), 전년 동월(59.0)보다 높았음(+12.7p). 금월에도 특히 토목분야 기술자의 수급문제가 제기됨.
 - 수도권(68.6→65.3)은 전월보다 소폭 하락(-3.3p), 지방(81.8→74.4)도 하락함(-7.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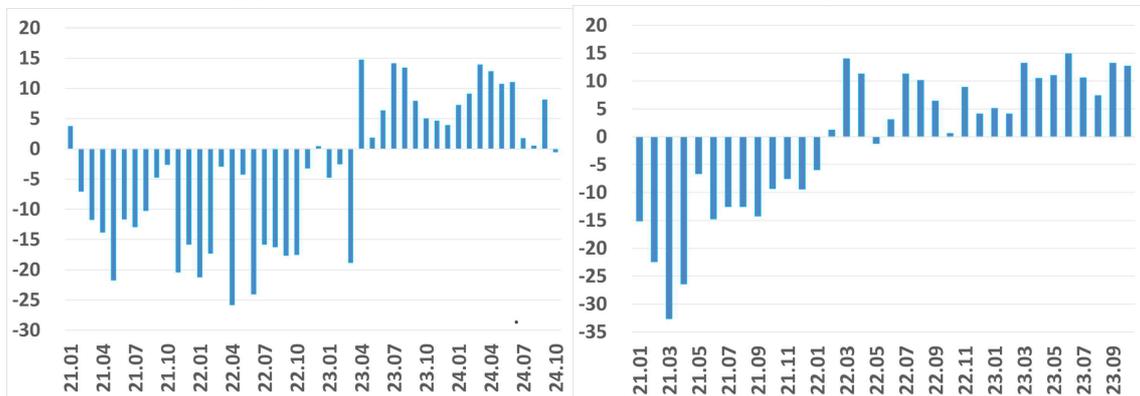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4년 10월 평가	59.6	60.1	61.2	59.0	56.7	71.2
	2024년 11월 전망	62.7	60.1	61.2	63.2	56.7	71.2
인력수급	2024년 10월 평가	71.7	59.0	65.3	74.4	60.0	86.4
	2024년 11월 전망	73.5	62.4	69.4	75.2	60.0	88.1



〈인건비 체감〉

〈인력수급〉



〈인건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인력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2)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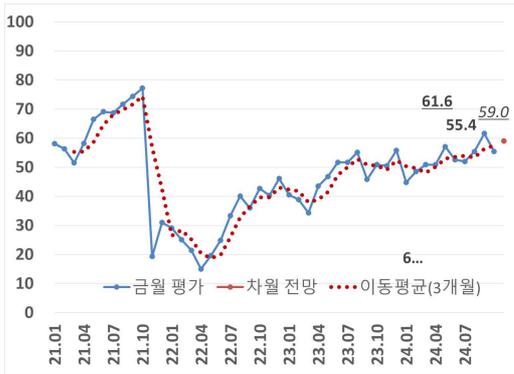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³⁾)

■ 자재비지수는 하락, 자재수급지수도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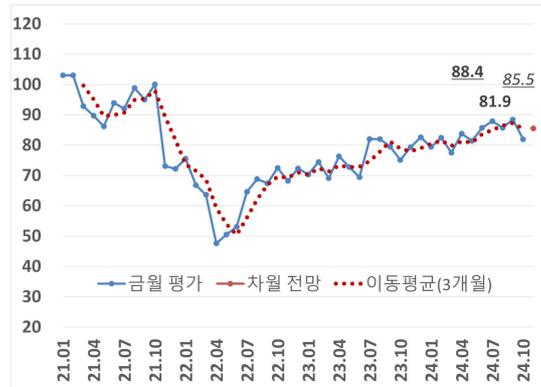
- 자재비⁴⁾ 경기실사지수는 55.4(61.6→55.4)로 전월보다 하락했으며(-6.2p), 차월(59.0)은 일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3.6p). 금월에는 자재비는 인건비와 함께 다수 응답이었음.
 - 수도권(66.7→59.2)은 전월 대비 하락(-7.5p), 지방(59.5→53.8)도 악화됨(-5.7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도 81.9(88.4→81.9)로 전월보다 하락(-6.5p), 차월(85.5)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3.6p). 이번에는 자재수급의 어려움을 지적한 업체들이 상당수였음..
 - 수도권(90.2→75.5)은 크게 악화(-14.7p), 지방(87.6→84.6)도 하락함(-3.0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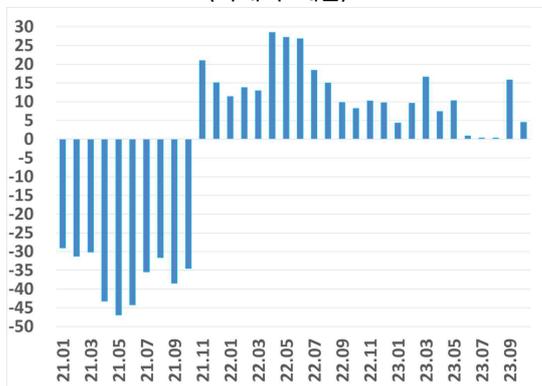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4년 10월 평가	55.4	50.9	59.2	53.8	50	66.1
	2024년 11월 전망	59.0	53.2	63.3	57.3	53.3	72.9
자재수급	2024년 10월 평가	81.9	75.1	75.5	84.6	60.0	96.6
	2024년 11월 전망	85.5	73.4	83.7	86.3	7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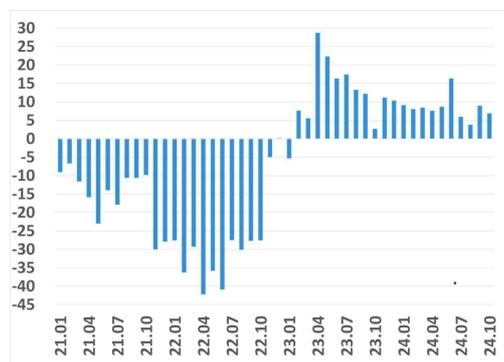
〈자재비 체감〉



〈자재수급〉



〈자재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3)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음(코로나 이전 시기의 지수는 대략 100정도 수준이었음).

4)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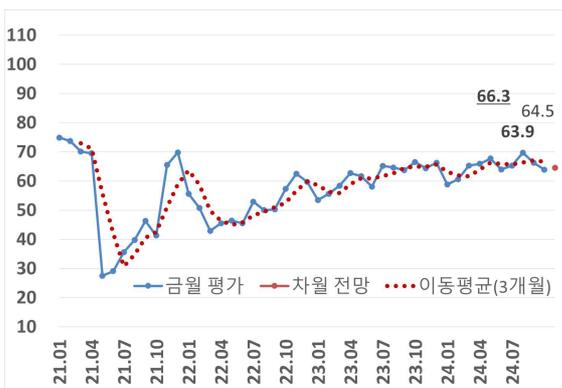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는 소폭 하락, 장비수급지수는 크게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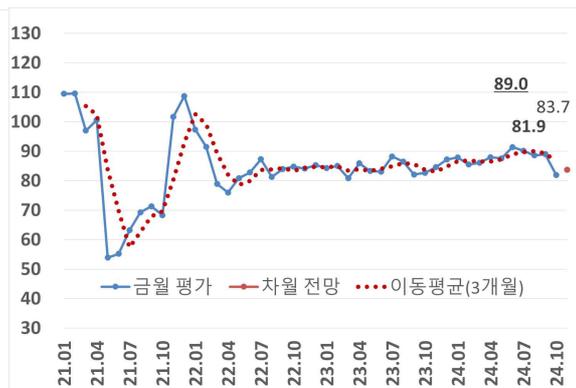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63.9(66.3→63.9)로 전월에 이어 소폭 하락했으며(-2.4p), 차월(64.5)에도 유사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0.6p).
 - 수도권(74.5→67.3)은 크게 하락(-7.2p), 지방(62.8→62.4)은 전월 수준이었음(-0.4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1.9(89.0→81.9)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7.1p), 차월(83.7)에도 개선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1.8p).
 - 수도권(88.2→77.6)은 전월보다 큰 폭으로 악화(-10.6p), 지방(89.3→83.8)은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5.5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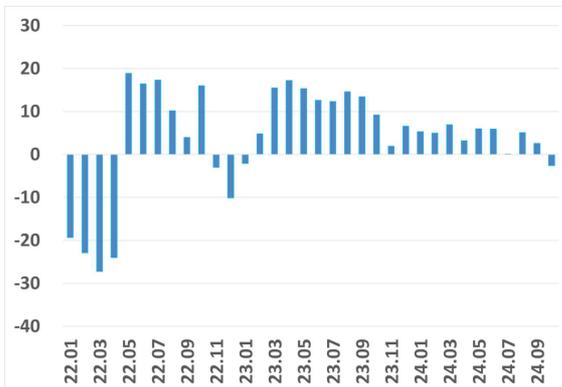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 임대료 체감	2024년 10월 평가	63.9	66.5	67.3	62.4	56.7	74.6
	2024년 11월 전망	64.5	68.2	61.2	65.8	50.0	76.3
장비수급	2024년 10월 평가	81.9	82.7	77.6	83.8	63.3	98.3
	2024년 11월 전망	83.7	80.3	79.6	85.5	6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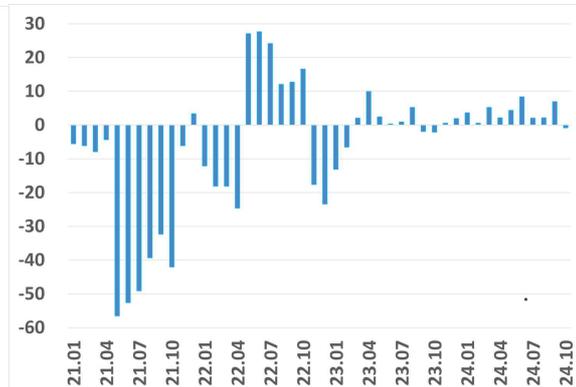
〈장비임대료 체감〉



〈장비수급〉



〈장비임대료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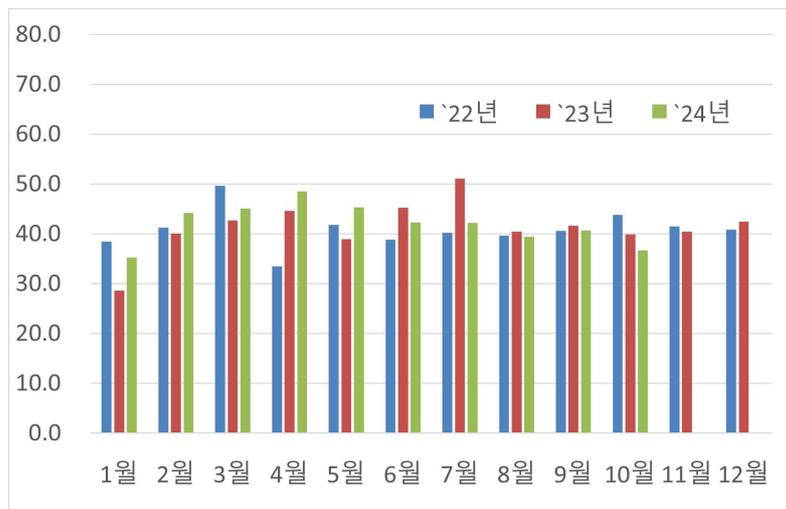
〈장비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참고: 2024년 10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36.7	39.9	40.8	35.0	40.0	42.4	
	차월 전망	41.6	39.3	44.9	40.2	40.0	52.5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46.4	44.5	59.2	41.0	63.3	52.5
		차월 전망	45.8	42.2	49.0	44.4	46.7	57.6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41.0	41.6	53.1	35.9	56.7	47.5
		차월 전망	42.2	38.2	51.0	38.5	46.7	50.8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57.8	53.2	63.3	55.6	70.0	66.1
		차월 전망	53.6	50.9	57.1	52.1	53.3	59.3
	자금조달	금월 평가	56.0	49.7	63.3	53.0	66.7	61.0
		차월 전망	56.0	52.0	61.2	53.8	56.7	67.8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59.6	60.1	61.2	59.0	56.7	71.2
		차월 전망	62.7	60.1	61.2	63.2	56.7	71.2
	인력수급	금월 평가	71.7	59.0	65.3	74.4	60.0	86.4
		차월 전망	73.5	62.4	69.4	75.2	60.0	88.1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55.4	50.9	59.2	53.8	50	66.1
		차월 전망	59.0	53.2	63.3	57.3	53.3	72.9
	자재수급	금월 평가	81.9	75.1	75.5	84.6	60.0	96.6
		차월 전망	85.5	73.4	83.7	86.3	70.0	100.0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63.9	66.5	67.3	62.4	56.7	74.6
		차월 전망	64.5	68.2	61.2	65.8	50.0	76.3
	장비수급	금월 평가	81.9	82.7	77.6	83.8	63.3	98.3
		차월 전망	83.7	80.3	79.6	85.5	63.3	100.0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